

“K리그 이번 지켜보라”... 광주FC 제주서 ‘구슬땀’

3차 전훈 키워드는 ‘디테일’
“실수 줄이고 세밀함 살려라”
다양한 공격전술 완성도 높여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 파이팅.”
강한 바람을 동반한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은 광주FC 선수들의 찌렁찌렁한 기합 소리로 가득찼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실새없이 내달리는 선수들의 유니폼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들었다.

올시즌 K리그1(1부리그)으로 복귀하는 광주FC가 2023 시즌 이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담금질이 한창이다.

광주는 지난 3일부터 제주 서귀포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3차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다.

광주 1차 동계훈련과 태극 치앙라이 2차 훈련에 이은 3차 전지훈련으로 올시즌을 준비하는 열기가 뜨겁다.

이날 훈련에는 주장 안영규와 이순민, 엄지성, 박한빈, 산드로, 아론 등 28명이 참여했다. 올시즌을 앞두고 새로 영입된 토마스와 아사니, 티모 등 외국인 선수 3명과 이적생 신장무, 신인 정지훈도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1·2차 동계훈련에서 고강도 체력 훈련과 함께 포지셔닝, K리그1을 대비한 새로운 전술 훈련을 마친 광주는 이번 3차 훈련에선 전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7일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2023시즌 K리그1을 대비해 3차 동계훈련을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 펼쳐지는 광주의 전술훈련 키워드는 ‘디테일’이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 항상 자기 위치에서 준비된 자세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강하고 빠른 1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세밀한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

때문에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의 패스와 볼 터치, 위치 선정 등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위치와 패스 속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각 포지션별로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수비 조직력 완성을 위한 포지셔닝과 커버업 등을 선수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하면서 전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찬스를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빠른 템포, 다양한 전술을 위한 패턴 훈련, 득점을 위한 세트피스와 마무리 슈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감독은 특히 공간을 지배하는 전술 실험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감독은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패스 하나에 경기 전체 흐름이 달라진다”며 “공이 없는 선수가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의식하게 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술을 설명하고 실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선수들에게 ‘지저분한 축

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올시즌엔 더 지저분한 수비로 상대를 몰아칠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괴롭힐까 생각하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스리백과 포백을 오가는 수비전술 훈련도 병행중”이라고 말했다.

실전감각 향상을 위한 연습경기도 병행한다. 8일 시흥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과 연달아 연습경기를 치렀다. 10일 강릉시민축구단, 14일 경주한수원축구단과 연습경기를 갖는다.

선수들도 ‘K리그 돌풍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주장 안영규는 “힘들게 1부리그로 올라

온 만큼 준비를 잘해 광주만의 축구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며 “K리그1 팀을 상대로 ‘도장깨기’를 통해 무서운 팀이라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주장 이순민도 “동계훈련을 일찍 시작해 몸을 잘 만들었고 새로운 전술에도 서서히 녹아드는 모습이다. 모든 선수들이 K리그1에서도 ‘해보자’는 동기부여가 강해서 시즌때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주는 17일까지 제주에서 3차 전지훈련을 마친 뒤 오는 25일 수원 삼성을 상대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복귀전을 치른다.

글·사진·최동한 기자

이정호 광주FC 감독 “올시즌 공격 축구로 매운 맛 보여주겠다”

K리그 동계전훈 미디어 캠프
강팀 상대 물러서지 않을 것
올 목표 ‘선수들 성장’ 꼽아

올시즌 K리그1 도전에 나서는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공격 축구로 나설 것을 알렸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8일 제주 서귀포 빠레브 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지난해 선수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힘들게 승격을 이뤄냈다”며 “K리그2는 K리그1과 다르지만 광주가 나아갈 길은 정해졌다. K리그2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격 축구를 추구할 생각이다. 1골을 넣으면 2번째 골을 넣기 위해, 2번째 골을 넣으면 3번째 골을 넣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광주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내 색깔이다”고 밝혔다.

울산 현대, 전북 현대 등 강팀들과 대결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감독은 “울산, 전북 등 강팀들을 상대로 지키는 축구를 하다 패하면 더 억울할 것 같다. 용기있게 도전하고, 실패를 맞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생각이다. 실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라며 “선수들에게도 올 시즌에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현실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올시즌 목표를 구체적인 순위 보다는 ‘선수들의 성장’으로 삼았다.

그는 “광주에는 잠재력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 선수들을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올림픽 대표, 연령별 대표팀에 최대한



이정호 광주FC 감독 (왼쪽)과 광주FC 제공

많이 보내고 싶다”며 “선수들을 믿기 때문에 자신있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성

장했고 동계훈련을 통해 더 성장했다. 선수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좋고 많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올시즌 선수단 구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다행히 지키고 싶었던 선수를 지켰고, 원하는 선수 4명이 더 들어왔다. 앞으로 2명 정도 더 영입하면 여름에도 선수단 운영을 하는데 여유가 생기고 더 과감한 교체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해 K리그2에서 당한 설움도 털어냈다. 그는 “지난해 K리그2 미디어데이 때는 ‘개무시’ 당하는 느낌이었다. 우리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초짜 감독이 와서 한디나 팀 자체를 아예 무시했던 느낌이라 안 좋았다”며 “지금도 시험대라고 한다. 강등을 걱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참 칭찬에 인색하다. 잘

하면 ‘잘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감독은 안정적인 1부리그 정착을 위해 광주FC의 축구 환경 개선을 꼽았다.

그는 “광주엔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이 별로 없다. 항상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운동장도 2시간 이상 못 쓴다. 운동장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며 “그런 환경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선수들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구단주이신 시장님이 운동장을 하나 크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그런 부분이 하나씩 개선이 된다면 광주가 K리그1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공격수 엄지성 “금호고 선배 엄원상과 맞대결, 절대 지지 않을 것”

올 목표 공격포인트 10개 이상
아게임 대표팀 합류 의지 밝혀

프로축구 광주FC 공격수 엄지성(21)이 금호고 선배인 엄원상(울산 현대)과의 맞대결에서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엄지성은 8일 제주 서귀포 빠레브 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엄원상 선배와

같은 라인에서 경기해야 한다. 감회가 새롭고 설렌다. 존경했던 선배이자 플레이를 보며 감탄했던 선배인데 경기장에서는 선수 대 선수로 맞붙는다.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동갑내기 유망주인 정상빈, 양현준 등과 기량을 겨루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엄지성은 “(정상빈, 양현준의 활약 소식에) 조급함이 있다고는 생각 안 했다. 저



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동기 부여가 되는지 알아서 선수로서 응원하겠다”며 “계속 좋은 활약을 하다 보면 높은 위치에서 만나지 않을까 해서 응원했다”고 말했다.

엄지성은 아시안게임 등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회를 나가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다. 한국을 대표해서 큰 무대에 나가는 것은 영광”이라며 “K리그1에서 좋은 모습

을 보여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올시즌 목표로는 공격포인트 10개 이상을 세웠다. 엄지성은 올시즌 보완할 점에 대해선 “감독님은 안주하지 말고 1골을 넣으면 2골, 3골, 4골을 넣게 노력하라고 작년부터 항상 말했다”며 “한 골을 넣으면 나태해진다는 말을 들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그야 팀에 보탬이 되고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